

요즘 웬만한 스크린은 터치로 작동되는데, 좀 예민한 사람들은 애플 제품의 터치가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게 좋다고 말해. 여하튼 ‘햅틱 사이언스(haptic science)’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보렴. 햅틱이 ‘촉각’이란 뜻이잖아. 이젠 의식주 모든 분야에 촉각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 같아. 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온도, 질감 등 체감에 예민해지거든. 예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같은 것이 웬만한 가정의 필수품이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한 가지 재미난 얘기를 해줄게. 커넬 샌더스가 1952년에 KFC를 창업한 후 몇 년간 슬로건을 20여 가зина 바꾸어 광고해봤지만, 마음에 드는 슬로건을 못 찾았다고 해.

그때는 TV 광고도 생방송으로 다소 길게 했다는군. 한번은 피닉스 지역의 데이브 허먼이란 점주가 광고를 해야 하는데 뇌졸중으로 명확하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졌대. 그래서 매장 매니저가 대신 광고하는 동안 배경으로 치킨 먹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야.

그런데 광고가 전송되는 도중에 한 여성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허먼 씨가 더럽게 손가락을 핥고 있다”고 항의했다는 군. 그랬더니 매니저가 재치 있게 “손가락을 쪽쪽 빨 만큼 맛있거든요(It’s finger lickin’ good)”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대박 슬로건이 되어 지금까지 쓰이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생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됐어.

촉감을 강조하는 슬로건이 이토록 오래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니 대단하지.